증기기관차 타고 시간여행 떠나 볼까

옛 곡성역에 '섬진강 기차마을'…음악분수대·드림랜드 등 시설
증기기관차·레일바이크 가장 인기…올 봄 '세계장미축제' 예정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첫 손에 꼽는 여행지는 '섬진강 기차마을'이다. 일제강점기 건축양식을 한 옛 곡성역사(근대등록문화재 제122호)에 들어서면 마치 1930년대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하다. 승강장에 서있는 증기기관차가 금방이라도 우렁찬 기적(汽笛)을 울리고 연기를 내뿜으며 '칙칙폭폭' 출발할 것만 같다.

옛 곡성역은 기차테마공원인 '섬진강 기차마을'로 변신했다. 드림랜드와 치치뿌뿌 놀이터, 동물농장, 요술랜드, 4D 상영관 등 시설이 들어서 있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증기기관차가 추억으로 관광객을 이끌고 기차마을을 한 바퀴 순회하는 미니기차와 레일바이크도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음악분수대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고 꼬마광장은 유럽풍 건물로 조성되어 작은 유럽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이 곳에서 4월 30일까지 새봄맞이 이벤트 '봄이여, 섬진강기차마을로 어서호랑께'가 열리고 있는데 잠시 쉬면서 즐겨보는 것도 좋을듯하다.

이벤트 장소인 중앙광장은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체험공간으로 변신했다.

체험존에서는 어린이 네일살롱,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키티 방향제 및 장미 향수 만들기, 꽃누르미(압화)로 소품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체험료는 대부분 3000원에서 1만원 이내로 저렴하다. 단 어린이 네일살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원하는 스티커를 고르면 손톱에 붙여주는 이벤트로 기차마을 어린이 방문객을 위해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휴게존은 음악이 있는 무인카페와 '쉼표'라는 휴식공간으로 구성됐다. 무인카페에서는 비치된 커피나 차를 방문객이 직접 타 마시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쉼표 역시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여행으로 지친 몸을 잠시 쉬어가기에 좋다.

이 외에도 마천목장군의 도깨비 전설을 모티브로 한 요술랜드와, 동물농장, 짚풀공예체험장, 치치뿌뿌 놀이터 등이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를 조화롭게 구성하고 있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가득 선사해 준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압권은 장미공원이다. 4만㎡ 부지에 프랑스와 독일 등 전 세계 1004종의 다양한 품종의 장미가 식재돼 있다. 개화기인 5~6월에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장미공원 안에는 공무도하, 맨도롱언덕 같은 다양한 포토 스팟도 있어 색다른 느낌의 사진도 간직할 수 있다.

지난해 가을에는 이 곳에서 곡성심청어린이 대축제가 열렸는데 '가을의 어린이날'이라 불릴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기차마을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아이들 놀이터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

올해 봄에는 이 곳에서 곡성세계장미축제를 개최해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미카3-129'라는 모델명을 붙인 증기 기관차는 3량의 객차를 달고 달린다. 기차마을에서 매일 4차례(오전 10시 30분, 낮 12시 30분, 오후 2시 30분, 4시 30분)에 운행한다. 가정역까지는 30분이 소요된다. 침곡역에서 출발하는 레일바이크는 5.1㎞ 거리를 순수한 인력만으로 굴려야 한다.

증기기관차와 레일 바이크 종점인 가정역 맞은편에는 곡성 청소년야영장을 비롯해 섬진강 천문대 등이 자리하고 있다. 125m 길이의 출렁다리(보도용 현수교)를 이용해 강건너로 갈 수 있다. 이 곳 섬진강을 중심으로 짚라인(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492)과 래프팅, 자전거 하이킹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

불향가득 고추장불고기 '석곡흑돼지'
흑돼지·토란·와사비 조화 '깨비정식'

흑돼지하면 제주 흑돼지를 떠올리지만, 여수, 순천 일대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의 석곡 흑돼지가 더 유명하다.

호남고속도로가 나기 전에는 석곡면이 광주와 순천을 오가는 차량의 중간 정차지였고, 석곡터미널을 중심으로 흑돼지 음식점이 줄을 이었다. 호남고속도로가 뚫린 것이 1973년이니 석곡 흑돼지의 역사가 최소 50년은 넘은 것이다. 최근에는 지역 대표 먹거리 '곡성 5미(味)'에 2미로 이름을 올렸다.

석곡 흑돼지 요리는 숯불에 구워 불향이 살아있는 양념고추장 불고기이다. 곡성 토종 흑돼지에 매콤한 양념을 버무린 후 석쇠에 올려 숯불에 구워내는 방식으로 식탁에 오른다. 단순한 구이를 넘어 흑돼지에 맛깔난 양념을 바르고 짚불에 구워 불맛까지 더해 깊고 진한 풍미를 자랑한다.

최근에는 곡성읍권 대표 먹거리로 또다른 흑돼지 요리인 '깨비정식'이 탄생했다.

석곡 흑돼지 요리가 오랜 노하우가 깃든 전통의 맛이라면 곡성읍의 깨비정식은 흑돼지와 와사비가 만나 맛의 조화를 이뤘다. 깨비 정식은 흑돼지 석쇠구이와 토란대, 간장 소스를 활용한 토란비빔밥, 토란 된장국, 멜론 장아찌, 와사비잎 겉절이로 구성된 정식이다. 50년 이상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흑돼지와 곡성에서 재배한 토란과 와사비가 한데 어우러진 그야말로 곡성을 담은 한상 차림이다.

깨비정식은 곡성읍 3개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기본 메뉴는 같지만 각 업소의 특색에 따라 저마다의 색다른 맛을 보여주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